

“이런 흥어는 처음”... 신안 병어가 사라졌다

‘조여름의 별미’ 신안 병어가 거의 잡히지 않아 어민들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6월 신안수협에 따르면 지도읍 북부지점 위판장에는 병어가 하루에 5~10상자 위판될 정도로 어획이 부진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0상자 가까이 위판장에 올랐지만, 올해처럼 흥어(凶漁)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어민들은 한숨지었다. 신안 해역에서는 매년 평균 170억원 어치의 병

어획고 작년 10%도 안돼
30마리 한상자 76만원 금값
내달 병어축제 앞두고 고민

어를 잡았다. 병어가 귀해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최근 30마리 한 상자가 76만원에 거

레되는 등 ‘금값’이다. 신안수협 관계자는 “200척이 넘는 어선이 신안과 영광 해역으로 출어했지만 적당 상품성 있는 병어 한 상자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지 않는다”면서 “어족자원이 고갈돼 병어는 물론 아귀 등의 어획고도 형편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온이 낮아 병어 어획 부진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황은 그

리 밝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신안군은 다음달 병어축제를 열 계획이지만 흥어가 되자 고민에 휩싸였다. 어황이 좋아지길 기대하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신안 해역에서 잡히는 병어는 살이 탱탱하고 비린내가 적다. 세포의 산화를 막아 폐를 보호하고, 노화의 주범인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비타민E 성분도 많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원더풀! 가축몰이 '제17회 함평 나비 대축제'가 한창인 지난 5일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새끼 멧돼지를 쫓아다니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비 대축제는 10일까지 체험, 전시, 문화예술 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펼쳐진다. <함평군 제공>

영광군 사회적 기업 4곳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영광군은 최근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해 관내 4개 업체와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업에 사업개발비 8500만원을 지원(산머루마을, 예담모시 송편, 토래삼협동조합)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총 1억8000만원을 2개 기업(토래삼협동조합, 귀뚜리랑개구리랑)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 약정체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올해 제1차 전라남도 재정지원 공모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취약계층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마련됐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영광 모시잎 송편 신제품 개발·연중 생산 박차

쌀·고물 등 원료 품질 고급화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

우리나라 떡산업 규모가 1조원 시대를 맞은 가운데 영광군이 건강·기능성이 탁월한 모시잎 송편의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시 신제품 개발과 연중 생산체계 확립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모시잎 송편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원료의 품질 고급화와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주원료인 쌀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가공 전용품종인 '보람찬벼' 재배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송편 속에 들어가는 고물인 동부 품종으로 '육당동부'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모시잎 송편의 맛과 기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모시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0여종의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10여종을 선발했으며,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영광군 주재) 박용복 박사는 “선발품종 가운데 영광 백수지역에서 생육특성과 가공적성이 뛰어난 자연 교잡종을 순계 분리해 올해 말까지 식물체

특허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모시 신제품 개발과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해 농가에 보급하면 모시잎 떡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영광 모시잎 송편산업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지역 특산품인 모시잎 송편은 모시풀의 잎을 삶아 물에 불린 맷살과 섞어 가루를 낸 다음 반죽해 모양을 빚으며, 송편 속에는 동부콩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무안 삼향읍 주민자치위 소외계층 위문품

무안군 삼향읍(읍장 박종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남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6회 삼향읍 주민한마음 배구대회'를 갖고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배구대회 선수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대회와 함께 공연 등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자치위는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 50만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5세대에 과일과 고기를 전달했다. <사진>



이종인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읍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소외계층이 지속적인 후원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남악=임동현기자 idh@

‘태안 기름유출 피해’ 신안 어장 살아난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흘러든 유류로 인해 황폐화된 신안 중도, 임자도 해역 어장환경이 살아나고 있다. 6월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3억원을 들여 유류 오염피해지역 마을어장 저질 경운과 백합·바지락 어미 조개를 이식·살포하는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사업추진 결과 황폐화됐던 마을어장이 살아나고 있고, 중도, 임자, 자은 3개면의 경우 백합 자원량이 눈에 띄게 회

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에도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양식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의 오염원을 수거·처리하는 사업도 병행해 생산성이 높은 건강한 어장으로 바꿔갈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대표어종인 첫새우, 민어 등 다양한 어종이 생산되는 임자권 조업어장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겠다”면서 “오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남도·무안군, 항공업체 2곳과 투자 협약

전남도와 무안군은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신한 에어(대표이사 김원호), (주)정광(대표이사 박준현)과 투자유지 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신한에어는 기존 활주로와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 이미 소형항공기 8대를 도입했고, 향후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항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광은 총 102억원을 투입해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내 부지 1만1028㎡에서 금속 단조품 제조와 기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분야의 민항기 제작·정비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 현진에버빌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번지 1층(53평)
정남향 / 초중고인접 / 즉시입주가

◆ 보1억5천만원 / 월100만
◆ 전세 3억8천만원

분양권 매매

▶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12.5평
광주 서구 농성동 417-18번지 12.5평
422세대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 6월초 입주예정

◆ 분양가 7150만원
◆ 매매가 5700만원(일시불 완납)

월산동 빌라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개끗 / 주차시설/방2 거실1개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오피스텔(임대/매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5평
광주 동구 불로동 23-2번지 49
현성업종 / 상권최상
권리금 저렴 / 즉시입점 가능

◆ 임대 보300만/월25만
◆ 매매 3500만원

674 - 2006